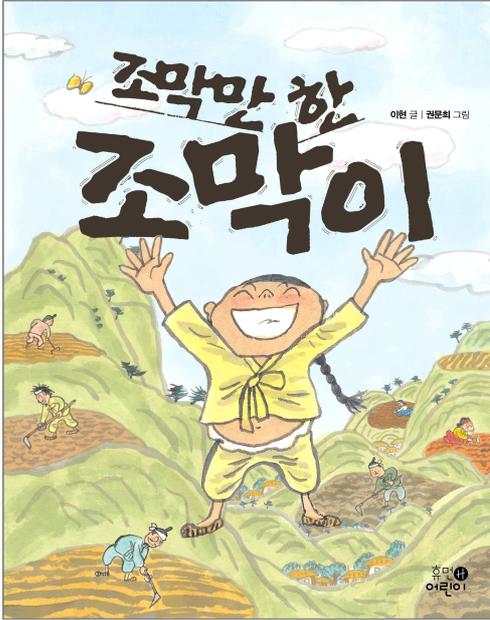


조막만 한 조막이

이현 글 | 권문희 그림

휴먼어린이 | 11,000원 | 132쪽 | 초등 저학년



책 소개

주먹보다도 작은 몸으로 알에서 태어난 ‘조막이’. 남들보다 조그만 조막이는 글자 한 자 모르는 아이지만 타고난 ‘피주머니’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 어느 날 조막이가 사는 열너미 마을에 도적떼가 나타나고, 조막이는 피를 써서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한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옛이야기 ‘조막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야기 곳곳에 숨겨 놓은 색다른 반전이 즐거움을 더해 준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개성과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동화이다.

주제 단어

#자기공정 #나다움 #성장 #개성 #재능 #피보
#옛이야기 #자아발견 #성인지감수성

생각 열기

1. <조막만 한 조막이>의 표지에는 주인공인 조막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막이는 성별이 무엇일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써 보세요.

2. 알에서 태어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이름들은 모두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자일 것 같은 사람 이름은 파란색으로, 남자일 것 같은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칠해 보세요. 성별을 잘 모르겠다면 초록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 고주몽
- 박혁거세
- 김수로
- 석탈해
- 김알지

3. 2번에서 이름 하나를 골라 어떻게 알에서 태어났을지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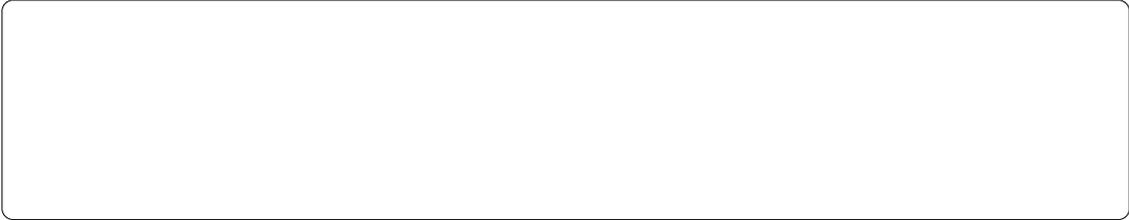
4. 조막이는 주먹보다도 작아서 '조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나요? 누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나요?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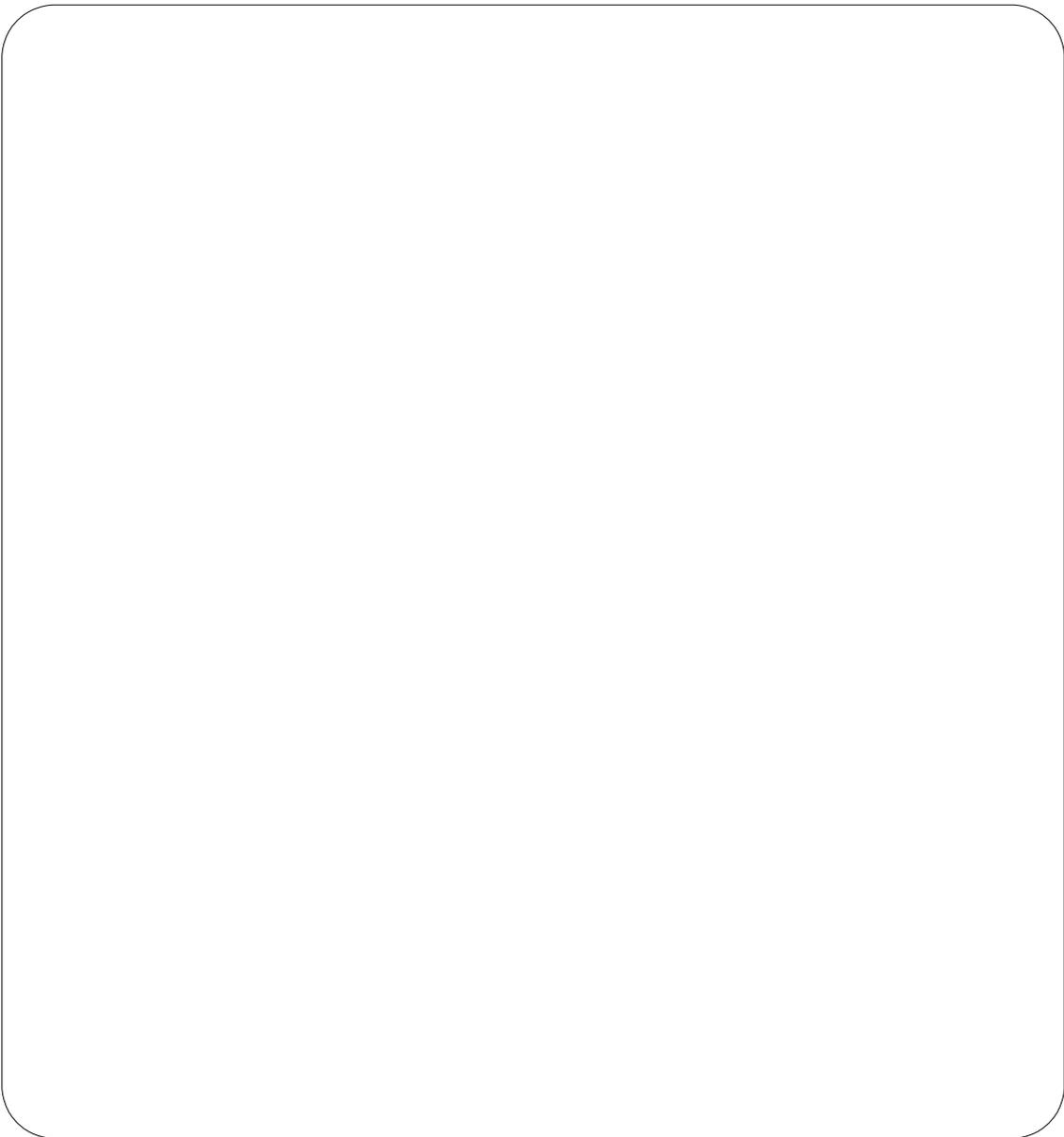
5. 우리 옛이야기 중에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활약하는 이야기를 하나 찾아서 아래 빈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단, 등장하는 인물들의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모두 바꿔서 써 보세요.

생각 펼치기

1. 조막이는 별명이 참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조막이에게 붙여 준 별명들을 써 보세요. 어떤 별명이 조막이와 가장 어울리나요? 가장 어울리는 별명을 골라 그 위에 별표를 그려 보세요.



2. 조막이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피를 써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조막이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3. 우리나라에는 ‘주먹이’라는 옛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아래에 실린 주먹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읽은 <조막만 한 조막이> 이야기와 같은 점, 다른 점을 찾아 써 보세요.

옛날 옛적에 산골에 사는 부부가 늙도록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늙은 부부는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뒷산 절에 가서 부처님께 밤낮으로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 때부터 주먹만 하더니 한참을 자라도 늘 주먹만 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주먹이’라고 불렀습니다. 늙은 부부는 주먹이를 귀여워해서 고이고이 키웠고, 어딜 갈 때면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주먹이를 데리고 강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주먹이는 주머니를 살짝 빠져나왔다가 길을 잃고, 풀을 뜯던 소가 주먹이를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주먹이는 소의 뱃속에서 실컷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썩 똥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솔개가 주먹이를 낚아채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매 한 마리가 나타나 둘이 주먹이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이 틈에 주먹이가 떨어져 강물에 빠지자 물고기가 나타나 덥석 삼켜 버렸습니다. 어둡고 답답해서 숨이 막혀 오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주먹이가 열심히 아버지를 부르자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고기의 배를 갈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주먹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저께까지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점

다른 점

4. 사유당의 훈장님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훈장님의 말대로 열너미 마을 사람들은 모르니 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의 마을을 만들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만든 마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왕 훈장: 이거 아세요, 들? 앞으로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양반 상놈 가리지 않고 온 나라의 아이들이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땅의 주인 같은 건 없는 세상이 옵니다. 누구나 땅을 일구면,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먹고살 수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확한 곡식은 여러분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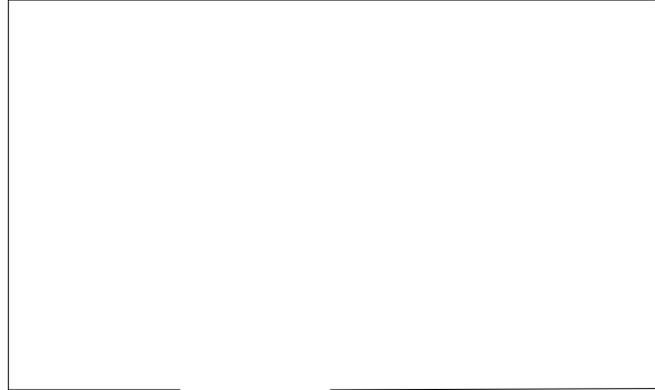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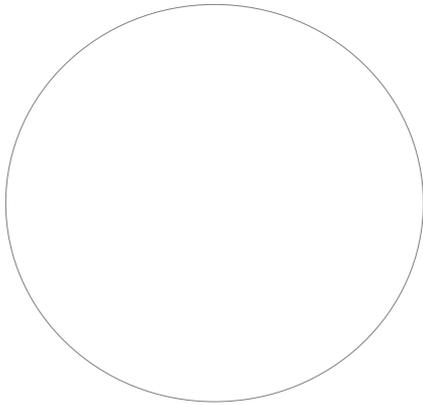
생각 마무리

1. 누구나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조막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동그라미를, 조막이가 싫어하거나 못하는 일에는 세모를 그려 보세요.

도적 떼 속이기	치마저고리 입기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글공부	훈장님과 내기해서 이기기	쿨쿨 잠자기

2.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싫어하나요? 아래 두 개의 빈칸 중 위의 동그런 칸 안에는 여러분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써 보세요. 아래의 네모난 칸 안에는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써 보세요.

3. 마을 사람들은 조막이 머릿속에 ‘피주머니’가 들어 있다고 했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주머니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머니가 있나요? 2번에서 여러분이 둥그런 칸 안에 쓴 것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둥그라미 안에 여러분의 모습도 그려 보세요.)

4. 조막이는 보리, 바우, 네돌이, 귀순이 등 여러 친구들과 함께 서당을 다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조막이처럼 그 친구들에게도 저마다 다른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주머니를 소개해 보세요.

친구 이름	친구가 가진 주머니